



# 낮설면서도 낮익은 박훈정표 액션

## 여고생을 둘러싼 미스터리극 '마녀'

낮설면서도 낮익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박훈정 감독의 신작 '마녀'는 한 여고생을 둘러싼 음모를 그린 미스터리 액션 영화다.

세상에 반격을 가하는 돌연변이 안티히어로(비도덕적이거나 통속적이어서 전통적인 영웅답지 않은 주인공)는 국내에서는 드물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제법 친숙한 소재다. 박 감독이 '프랑켄슈타인'에 착안해 직접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기존 영화들의 익숙한 문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감독은 그러나 그만의 방식으로 '박훈정표'라는 인장을 확실히 새긴다.

바로 스타일리시하고 음습하면서도 잔혹한 액션이다. 극 속에 담긴 철학적 질문을 굳이 되새길 필요는 없다. 액션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영화로서 미덕을 갖췄다.

영화는 선혈이 낭자한 한 시설에서 출발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숲으로 홀로 도망친 소녀를 뒤쫓는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소녀는 농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집 앞에서 발견된다. 10년 후. 어렸을 때의 모든 기억을 잃고 평범한 여고생이 된 소녀 자운(김다미 분)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우려 가액의 상금이 걸린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다. TV 출연 이후 얼굴이 널리 알려진 소녀에게 어느 날 괴한들이 접근하고, 소녀는 위협을 감지한다.

중반까지 소녀와 친구의 우정, 가족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주던 영화는 후반부터 결이 확 바뀐다. 느린 템포의 전주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렬

한 액션의 향연으로 관객을 몰아넣는다.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액션은 정교한 세공을 거친 듯하다. 컴퓨터가 임처럼 차갑게 적을 쓰러뜨리다가도, 날 것 그대로의 아날로그 액션이 등장해 감정의 온도를 높인다.

액션에 설득력을 불어넣는 이는 신인 배우 김다미다. 그가 이 영화 최대 수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디션에서 1천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그는 신인임에도 양극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극을 주도한다.

영화는 미스터리답게 125분 상영시간 동안 제법 몰입감 있게 전개된다.

그러나 가끔 드라마와 캐릭터, 액션은 율동불통한 길을 달리듯 엇박자를 내며 빼겨댄다.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톤은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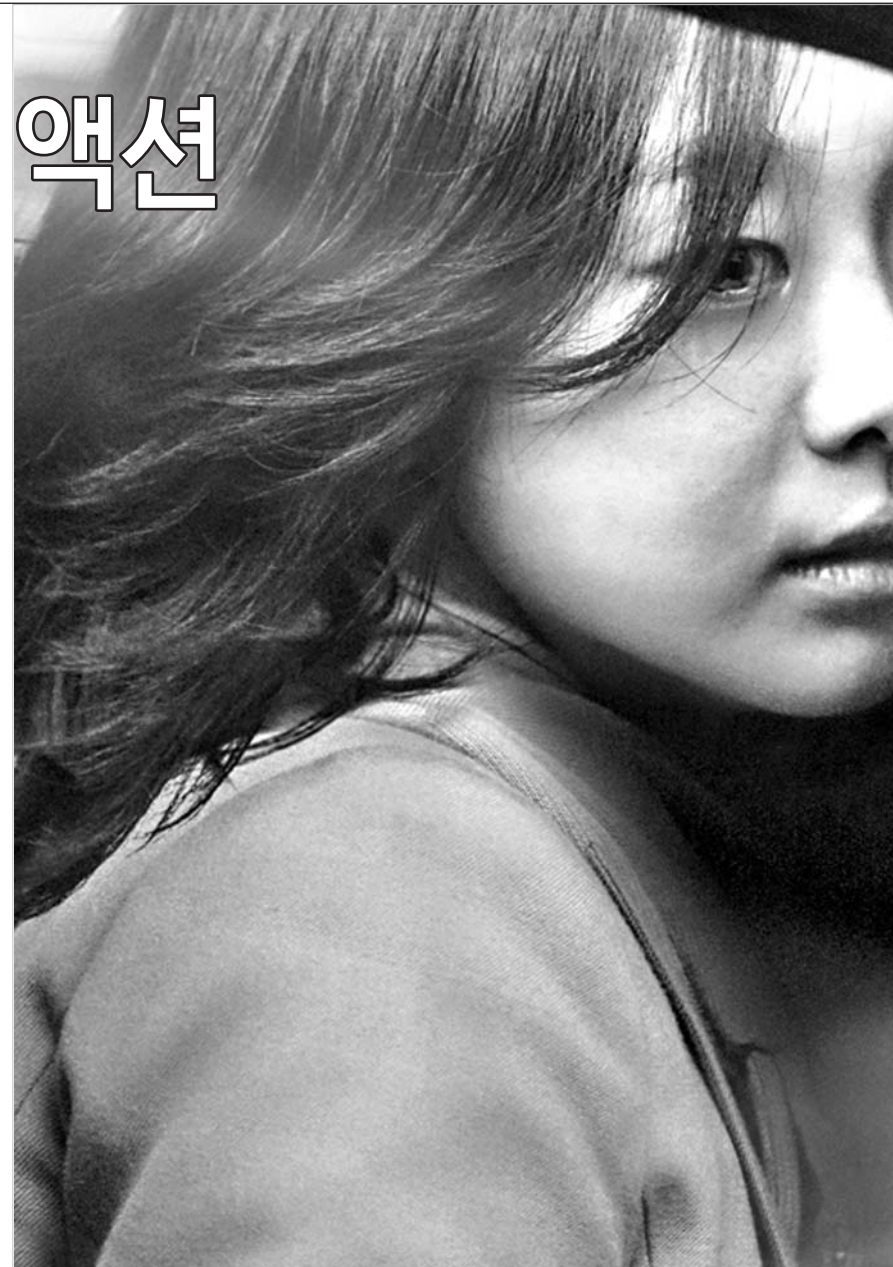
여고생 자운과 함께 극을 이끄는 닥터 백(조민수), 미스터 최(박희순), 귀공자(최우식) 등의 캐릭터는 신선

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다. 이들은 말끝마다 욕설과 비속어를 내뿜는다.

긴박한 순간에 등장하는 장황한 설명식 대사 역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무엇보다 피가 흥건한 폭력 장면은 관객의 호불호가 갈릴 듯하다. 박 감독조차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좀 의외였다"고 했다.

박 감독은 이 작품에 철학적인 명제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지, 또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 등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작품에는 영어로 'Part 1. The Subversion(전복)'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속편을 염두에 두고 기획·제작된 것이다. 박 감독은 "2편은 '중독'이라면서도 "지금은 속편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젊은 감독들이 풀어낸 '극장'의 의미

## 유지영·정가영·김태진 '너와 극장에서'

작문 시험시간에 '극장'이라는 제시어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글을 쓸까. 누군가에게 극장은 유년시절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첫사랑과의 데이트 장소일 수 있다.

반면 누군가에게는 지난 사랑을 물어버린 곳일 수 있고 간혹 끔찍한 기억이나 두려운 경험을 한 장소일 수도 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2009년부터 재능 있는 신인 감독 발굴을 위해 '독립영화차기작 프로젝트: 인디트라이앵글'이라는 사업을 했다. 하나의 제시어를 주고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공모해 당선작의 영화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가 제시한 주제는 '극장'이다. 이에 유지영·정가영·김태진 등 3인의 젊은 독립영화감독이 나름의 답안을 제출했고, 이들이 연출한 3편 단편 영화가 한 데 묶여 '너와 극장에서'라는 제목의 유니버스 영화가 탄생했다.

유니버스 단편 중 첫 번째 작품 '극장 쪽으로'를 연출한 유지영 감독은 극장이 꼭 낭만적인 공간만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유 감독은 "극장이 악몽이 되면 어떨까. 미스터리 형식으로 해보자고 마음 먹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선미'(김예은 분)는 반복되는 삶에 권태를 느끼던 중 누군가로부터 '6시 오오극장에서 봐요'라는 쪽지를 받게 된다.

선미는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오오극장으로 향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다. 낯선 만남에 대한 기대는 차츰 짜증과 허탈함으로 변해간다.

두 번째 작품 '극장에서 한 생각'을 연출한 정가영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다.

정 감독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 느낀 충동이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극중 '가영'(이태경 분)은 공포 코미디 '극장 살인사건' 연출을 마치고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다.

가영은 그간 멜로 영화를 찍었고, 관



객과의 대화 때마다 "경험에 바탕을 둔 실화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했다.

가영이 "이제 영화가 실화냐는 질문을 안 받게 될 것 같아 좋다"고 한 순간 무례한 관객은 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가영의 사생활까지 거론한다.

세 번째 작품 '우리들의 낙원' 김태

진 감독은 영화를 보러 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김 감독은 "영화가 극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는 과정,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이 모두 영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극장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일종의 소동극으로 풀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은정'(박현영)은 직장 생활에 찌든 중년 여성으로 출납리스트를 갖고 사라진 부하직원 '민철'을 찾아 나선다.

민철이 영화에 죽고 사는 영화 '덕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은정은 민철의 친구로부터 그가 종로의 한 예술극장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잡으러 종로 바다를 헤맨다.

세 감독은 모두 예술영화극장을 무대로 삼았다. '극장 쪽으로'의 무대인 '오오극장'은 2015년 개관한 대구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이다.

'극장에서 한 생각'에서 가영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는 곳은 압구정동 가로수길 예술영화관 '이봄씨어터'고, '우리들의 낙원'에서 은정이 민철을 찾아 도착한 '서울아트시네마'는 서울 유일의 민간 시네마테크전용관이다.

감독들은 본인 삶의 터전이기도 한 극장을 무대로 삼아 관객에게 "당신에게 극장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28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 개그맨 김태호, 군산 방화 사건으로 사망

## 지인 모임 참석 참변...동료들, SNS 통해 애도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어이없는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19일 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자선골프대회에 참석차 군산을 찾았으며, 같은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김태호는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코미디세상만사', '6시내고향', '사랑의가족'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행사 전문 MC로 활동해왔다.

또 2013년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공로상, 2014년 같은 시상식의 MC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방송코미디언협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을 정도로 필드



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랬던 그가 '술값 10만원' 때문에 참변을 당하자 코미디언계에서도 안타까움을 동반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께 발생한 군산 주점 방화 사건은 범인이 주점 주인과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다 화염에 주점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벌어졌다. 주인이 술값 20만원을 요구하자 "왜 10만원인데 20만원을 요구하느냐"며 벌인 이 방화에 김태호를 비롯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4층 귀빈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딸이 있다.

# 엄용수, '아침마당' 서 여성장애인 비하

## 프로그램 제작진 "재발 방지하겠다" 사과

개그맨 엄용수가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해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 제작진이 사과했다.

앞서 엄용수는 지난 14일 '아침마당'에 출연해 출연료와 상관없이 일한다는 의미로 "고추 축제하면 고추로 (출연료를) 받고, 딸기 축제를 하면 딸기로 받고, 굴비 아가씨 축제를 하면 아가씨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지하자 엄용수는 "코미디언이 웃기지 못하느냐"고 반박하며 도를 넘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또 "내가 성희롱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뭘 수 없어서 금세 붙잡힌다"며 자신이 과거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을 잃어 6급 장애인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공료 30%



할인을 받아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천만원을 번다"고 말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이런 발언 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아침마당' 제작진은 20일 입장을 내고 "엄용수 씨와 제작진은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엄씨가 현금보다는 인간적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본인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발생했다. 녹화 방송이면 충분히 편집에서 거를 수 있었는데 생방송이어서 여의치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 JBJ 출신 김동한, 홀로서기

## 중성적 느낌 미니 1집 '디데이' 공개

그들 JBJ 출신 김동한(20)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김동한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카드 팬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미니 1집 '디데이'(D-DAY)를 공개했다.

김동한에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JBJ 합류에 이어 이번 솔로 데뷔가 세 번째 기회다. 공식 석상에서 그는 지난 4월 21~22일 열린 JBJ 단독 콘서트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JBJ 활동이 끝난 뒤 바로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며 "한 달 만에 7kg을 뺐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근육이 생기면 안 돼서 유산소 중심으로 맨

손 운동을 했다. 춤도 열심히 쳤다"고 근황을 전했다.

세 번째 도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떨린다"면서도 "오롯이 제 색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김동한의 무대'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제가 솔로로 데뷔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 콘서트 때 사이니 태민 선배님의 '무브'(Move)를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무대를 본 소속사(워너터레인먼트) 대표님이 '동한이는 솔로를 시키자'고 하셨다"며 "팬들이 없었다면 그 콘서트를 할 수 없었을 테니 모두 팬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선셋'

(Sunset)을 비롯해 '디데이', '에인 트노 타임'(Ain't no time), '기록해줘', '새벽전화'까지 총 5곡이 담겼다. 등이 깊숙이 파인 무대의상과 중성적인 느낌의 안무가 눈길을 끈다.

그는 사이니 태민의 무대를 많이 참고했다면서 "태민 선배님에게 절제된 섹시함이 있다. 손끝이 섹시하다. 그런 제스처를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솔로로 나오면서 막막하다"며 "아직 고민을 다 해소하지 못했지만, 팬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해소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탈락 연습생들을 조명한 가상의 그룹이었던 JBJ는 지난해 10월 팬들의 요청으로 데뷔의 꿈을 이뤄 7개월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 연장 요청이 쏟아졌지만 멤버들의 각 소속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